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뻔한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기회들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배움으로써 가르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겸손으로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오늘 이시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 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Guardad, pues, con diligencia vuestras almas, para que améis a Jehová vuestro Dios.

12.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12 Porque si os apartareis, y os uniereis a lo que resta de estas naciones que han quedado con vosotros, y si concertareis con ellas matrimonios, mezclándoos con ellas, y ellas con vosotros,

13.정녕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13 sabed que Jehová vuestro Dios no arrojará más a estas naciones delante de vosotros, sino que os serán por lazo, por tropiezo, por azote para vuestros costados y por espinas para vuestros ojos, hasta que perezcáis de esta buena tierra que Jehová vuestro Dios os ha dado.

이어서 14절 보면요

14.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14. Y he aquí que yo estoy para entrar hoy por el camino de toda la tierra; reconoced, pues, con todo vuestro corazón y con toda vuestra alma, que no ha faltado una palabra de todas las buenas palabras que Jehová vuestro Dios había dicho de vosotros; todas os han acontecido, no ha faltado ninguna de ellas.

15.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5. Pero así como ha venido sobre vosotros toda palabra buena que Jehová vuestro Dios os había dicho, también traerá Jehová sobre vosotros toda palabra mala, hasta destruirlos de sobre la buena tierra que Jehová vuestro Dios os ha dado,

16.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16. si traspasareis el pacto de Jehová vuestro Dios que él os ha mandado, yendo y honrando a dioses ajenos, e inclinándoos a ellos. Entonces la ira de Jehová se encenderá contra vosotros, y pereceréis prontamente de esta buena tierra que él os ha dado.

여호수아 23장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고별사의 내용들이 예언, 경고의 성격을 띤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추는 그 때에 바로 너희들도

멈춰질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 역사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치욕의 역사가 결국엔 마무리가 되는 북 이스라엘의 역사에 종착점에

저희들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건들 한 장 이것을 이루기 전에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렇게 읽어 오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요나 이야기를 듣고 벌써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인데요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에 이를 수 받게 없었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꼭 밟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교훈으로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까지 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멸망에 관한 간략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23절까지 17장의 7절부터 23절까지가 멸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기술이 바로 7절부터 23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 33절까지 아니면 41절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24절부터 41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땅을

누가 차지하게됐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혼합종교 혼합신앙이 시작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신들도 자기신들도 섬기는 그런 혼합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멸망의 결과 혼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삶의 교훈, 우리가 또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되는 그런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장 1절 보시면요

1. 유다 왕 아하스 십 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년을 치리하며

En el año duodécimo de Acáz rey de Judá, comenzó a reinar Oseas hijo de Ela en Samaria sobre Israel; y reinó nueve años.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E hizo lo malo ante los ojos de Jehová, aunque no como los reyes de Israel que habían sido antes de él.

3. 앓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Contra éste subió Salmanasar rey de los asirios; y Oseas fue hecho su siervo, y le pagaba tributo.

4.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대로 앓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앓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Mas el rey de Asiria descubrió que Oseas conspiraba; porque había enviado embajadores a So, rey de Egipto, y no pagaba tributo al rey de Asiria, como lo hacía cada año; por lo que el rey de Asiria le detuvo, y le aprisionó en la casa de la cárcel.

5.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삼년을 에워쌌더라

Y el rey de Asiria invadió todo el país, y sitió a Samaria, y estuvo sobre ella tres años.

6. 호세아 구년에 앓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앓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En el año nueve de Oseas, el rey de Asiria tomó Samaria, y llevó a Israel cautivo a Asiria, y los puso en Halah, en Habor junto al río Gozán, y en las ciudades de los medos.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대 마지막 왕이 죠

이 호세아 왕은 반역으로 왕위를 찬탈한 사람입니다.

15장 30절 보시면요

웃시야의 아들 요담 이십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Y Oseas hijo de Ela conspiró contra Peka hijo de Remalías, y lo hirió y lo mató, y reinó en su lugar, a los veinte años de Jotam hijo de Uzías.

19대 왕이 베가였죠

그 사람을 반역해서 호세아가 왕이 된 겁니다.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 보면 반역과 반역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한 또 반역

이 반역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피가 난무한 역사 피로 아주 물든 역사 반역의 역사 추하고 더러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보여줄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또한 그 반역이 반역을 낳는 그런 모습들의 역사를 보일 것을 미리 북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반역은 반역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반역의 역사로 가득 채워질 수 받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 멀리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역사를 우리가 이시대에 보고 있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는 것은 권력과 피 세대를 거듭한

그 무시무시한 피의 숙청들 반역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대목입니다.

방금 읽었던 모습에서 보면 호세아가 처음에 앗수르를 섬겼어요 조공을 바쳤지요

그러나 애굽왕 소에게 다시 붙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앗수르는 배반으로 알고

바로 북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특히 예루살렘을 3년간 포위하고

멸망시킵니다. 이때가 바로 B.C. 722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을

시작한지 약 26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드디어 북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고 또한 그렇게 사라진 자들이 있습니다

흩어 버렸죠 그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역사속에서 지게 됩니다.

끔찍한 역사인데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 조만간 남 유다의 멸망의 역사가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의 원인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참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북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진술이 되어있습니다. (왕하17장

임)

7절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6절까지의 일이죠

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Porque los hijos de Israel pecaron contra Jehová su Dios, que los sacó de tierra de Egipto, de bajo la mano de Faraón rey de Egipto, y temieron a dioses ajenos,

7절은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진술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자유를 선언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사는 인생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기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서 자유민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고 실제 시행하신 사건입니다.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어

라고 모세 오경은 수십차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땅은 종되었던 집이다

너희는 노예였다. 너희의 몸값을 지불하며 파와 마늘과 부추를 얻었던 그런 노예의

땅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로부터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왜 진리를 선포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자유가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세요 우리는 그렇게 애굽땅 노예되었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고 바로 너희를 자유민이 되게 한거 아니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민으로 자유를 주어 끌어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팔아버렸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17절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17. e hicieron pasar a sus hijos y a sus hijas por fuego; y se dieron a adivinaciones y ag:ueros, y se entregaron a hacer lo malo ante los ojos de Jehová, provocándole a ira.

자 이제 보십시오 스스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들이 스스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 귀한 자유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 이 인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를 다시 팔아버린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는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팔아버리는 겁니까?

이들은 팔아버렸다고 그래요 스스로 팔아버렸다고

참 끔찍한 죄예요 처번째 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에 이른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선언하신 자유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헐 값에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오래된 예기죠 저도

더 오래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참 싫었어요 저는 군대가기 참 싫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워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 갔더니요 3시3끼 밥을 다 먹여주더라구요

옷도 주더라구요 옷도 옷도 주고 군화도 주고 총도 줬어요 총

여러분 총 받아보신분 별로 없지요? 우리 형제 선생님들은 받아보셨겠지만

총도주더라구요 저는요 155mm 대포도 췌어요

여러분 아세요 155mm 대포? 켈 큰 대포입니다. 주더라니까요

용돈도 췌어요 월급도 3천원씩 휴가가면 8천원 그렇게 주고 제가 먼 곳이었으니까

만얼마 주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노예로 산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대예요 제대

다 췌어요 다줘 제가 춘천 소양광에서 마지막 전역증을 받았습니다.

소양호를 배를타고 건너와가지고 마지막 전역증을 하나씩 주더라구요

전역증을 받아든 그 순간 각오를 했죠

내가 다시는 강원도 땅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볼 것이다.

지긋지긋 했습니다. 노예로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싶었어요 여행가고 싶을 때 여행가고 싶었다니까요

제 유일한 소망은 그것이였어요 노예로 산 인생도 아니었는데

제 자유가 침해받는다 생각하고 통제받는다 생각했을 때 저는 자유를 꿈꿨단 말입니다.

저에게서 자유를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선언하신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다시 팔아버린거예요

첫 번째 원인 허락하신 자유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다시 종되겠
다는 거예요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역시 이 세상의 종되었고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뭔가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과 마귀를 섬기며 살았던 그런 노예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
을

본질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스스로 그 자유를 팔아버릴꺼예요? 그럴수는 없습니다.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인간이 인간된 것은 우리에게 자유 그리고 자유의지 선택에 자유가 있다는 사
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팔아버린다면 이것보다 큰 죄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죄예요

첫 번째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그들이 스스로 팔아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멸망의 죄가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7. Porque los hijos de Israel pecaron contra Jehová su Dios, que los sacó de tierra de Egipto, de bajo la mano de Faraón rey de Egipto, y temieron a dioses ajenos,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가짜신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y anduvieron en los estatutos de las naciones que Jehová había lanzado de delante de los hijos de Israel, y en los estatutos que hicieron los reyes de Israel.

9.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Y los hijos de Israel hicieron secretamente cosas no rectas contra Jehová su Dios, edificándose lugares altos en todas sus ciudades, desde las torres de las atalayas hasta las ciudades fortificadas,

10.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0 y levantaron estatuas e imágenes de Asera en todo collado alto, y debajo de todo árbol frondoso,

11.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으며

11 y quemaron allí incienso en todos los lugares altos, a la manera de la naciones que Jehová había traspuesto de delante de ellos, e hicieron cosas muy malas para provocar a ira a Jehová.

12.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12 Y servían a los ídolos, de los cuales Jehová les había dicho: Vosotros no habéis de hacer esto.

16절을 보시면요

16. 그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Dejaron todos los mandamientos de Jehová su Dios, y se hicieron imágenes fundidas de dos becerros, y también imágenes de Asera, y adoraron a todo el ejército de los cielos, y sirvieron a Baal;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e hicieron pasar a sus hijos y a sus hijas por fuego; y se dieron a adivinaciones y ag:ueros, y se entregaron a hacer lo malo ante los ojos de Jehová, provocándole a ira.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Jehová, por tanto, se airó en gran manera contra Israel, y los quitó de delante de su rostro; y no quedó sino sólo la tribu de Judá.

하나님이 특별히 우상숭배 이것을 특별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특별히 싫어하세요 지금 여기 멸망의 이유에 기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큰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영적 간음 우상숭배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가지 질문을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실까? 가장 큰 죄중의 하나로

바로 이 우상숭배를 다루실까? 한번 생각해봐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숭배 이것을 그렇게 마워하실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러실까? 나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황을 한가지 떠올려 봤습니다.

제 자식이 아버지의 날을 두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상상을 한겁니다. 좀 실감나게 제 아내가 남편인 나를 놔두고 다른 남자를 받들어요

실감이 나기 시작하죠

치욕이구나 참으로 나에대한 치욕이구나 이걸 참 생각하시고 싫을 만큼 끔찍한

거예요

관용을 해야 합니까?

이때가 톨레랑스가 필요한 거예요? 관용의 정신이?

내 자식이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아빠 나를 제쳐놓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관용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되요? 그건 치욕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용납하실꺼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치욕이구나 하나님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온 세계의 작품에 주인이신 작가

다른 작품을 작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품이 다른 작품을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는 치욕인 겁니다. 이것은 그럼으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각별히 미워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실감이 나죠 제 처자식을 생각해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견딜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돌과 나무와 행음하였다.

금은동 목석에 행음하였다고, 우상숭배 다른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해요

행음이라고 해요 맞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큰 죄입니다.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타협하고 관용의 정신을 보일만한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2장을 보시죠

예레미야 2장 5절

5.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관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Así dijo Jehová: ¿Qué maldad hallaron en mí vuestros padres, que se alejaron de mí, y se fueron tras la vanidad y se hicieron vanos?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Y no dijeron: ¿Dónde está Jehová, que nos hizo subir de la tierra de Egipto, que nos condujo por el desierto, por una tierra desierta y despoblada, por tierra seca y de sombra de muerte, por una tierra por la cual no pasó varón, ni allí habitó hombre?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어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

으며

Y os introduje en tierra de abundancia, para que comieseis su fruto y su bien; pero entrasteis y contaminasteis mi tierra, e hicisteis abominable mi heredad.

8.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Los sacerdotes no dijeron: ¿Dónde está Jehová? y los que tenían la ley no me conocieron; y los pastores se rebelaron contra mí, y los profetas profetizaron en nombre de Baal, y anduvieron tras lo que no aprovecha

9.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Por tanto, contenderé aún con vosotros, dijo Jehová, y con los hijos de vuestros hijos pleitearé

10.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Porque pasad a las costas de Quitim y mirad; y envidad a Cedar, y considerad cuidadosamente, y ved si se ha hecho cosa semejante a esta.

11.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Acaso alguna nación ha cambiado sus dioses, aunque ellos no son dioses? Sin embargo, mi pueblo ha trocado su gloria por lo que no aprovecha.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뀌버린일 끔찍한 일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내 백성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뀌버렸다.

신 아닌 것과 바꿔 버렸다. 하나님의 참신을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꿔버렸다는 사실 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느냐? 이러한 일의 이후를 잘 보라

애스겔 서는 이런 일이 전무 후무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애스겔 서에서는

우리는 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간음, 우상숭배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문제 입니까? 그들이 영적간음을 했구나 안되지 우상 숭배는

그러고 끝나는 문제입니까? 나는요? 나의 문제로 끌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석 그것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꺼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들인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 들인 우상 내 우상은 지금

무엇일까? 한번쯤은 곰곰이 돌이켜 살펴봐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내 우상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슨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고 살고 있을까?

곰곰이 질문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그저 어 그래 이들이 잘못된 거야 그래

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장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5절

5.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 Porque sabéis esto, que ningún fornicario, o inmundo, o avaro, que
es idólatra, tiene herencia en el reino de Cristo y de Dios.

우상숭배자가 기록되 있습니다. 목석을 섬기는 것 만이 우상숭배라고 안되었습
니다.

탐하는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음행하는자 더러운자 이자는 우상숭배자 아니겠
습니까?

탐하는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거된 죄들은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까?

먹고 사는게 중요하지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돌보지 않은
것 죄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유자나 다시 종이 되었다고 예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종된자라고 예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더러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냐?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이 말하는거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치 아니한
다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그 의미는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라는 진정한 주인이 아닌 그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또다른 주인에게 복속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는 않아, 나는 탐심을 부리지는 않아 아파트 살려고 그렇게 탐
심을 부리진 않아

그래서 죄가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될 일 마땅히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순종
의 길

행함의 길이 아닌 것도 성경은 죄라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사 수련회 어그제 끝내고 왔죠

신앙의 열정을 품은 교사 음~ 열정을 품어야지 그럼 열정을 품어야지

그래 열정을 품어야지 땡

같다와서 열정이 좀 늘었다 하시는 분 손한번 들어보세요 갔다왔더니

열정이 막 업되고 있다.

신앙의 열정을 품은 교사 단어만 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주인의 뜻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인의 대한 충성이요 주인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른 주인 앞에 복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물질에 취해 계신분 계십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물질은 중요해요 악하고 나쁘게 아닙니다.

선용해야 합니다. 악용하는 것이 아니죠 귀하게 써야되요 하지만 치우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베드로전서에는 예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우상숭배하고 무법자로 살아가던 그 지나간 때가 족하다 충분하다 이제 뉘다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보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21절

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Hijitos, guardaos de los ídolos. Amén.

요한일서 5장에 나와있는 궁극적인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거짓 교리들을 뜻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속에서 뭔가 주인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순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 한다면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받아드리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너희자신을 지켜라 우상에서 멀리해라 지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해요

그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그 때가 이미 충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상에서 너희자신을 지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의 사랑이 다시 되라고

열심 열자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인 간음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 볼일입니다 .

그럼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간음의 뿌리가 어디였는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의 뿌리가 북이스라엘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누구? 누구죠?

여씨인데 여씨 네 제가 자꾸 여로보암을 치는데 여러보암이라고 치더라구요 여로보암 이렇게

여로보암 여로보암 여러보암 근데 이 참 여로보암 하면서도 제가 웃었어요 치면서

왜그러냐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는 이야기가 20번 이상 반복됩니다

여러번이에요 여러번 이름도 참...

20번 이상 열왕기하에요 왕들이 북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범할 때 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되었어요

참 이게 슬픈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봐보세요

계속 죄 지을 때 마다 그 왕들의 밑에 수식 절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이 뿌리입니다. 뿌리
12장이 아니네요 열왕기상 12장이죠

이 때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죄가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실제 아시다싶이 열왕기상 12장에 이제 25절부터 해당됩니다.

원래 그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주 귀한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의 죄예요

모든 죄의 시발 그 시작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Entonces reedificó Jeroboam a Siquem en el monte de Efraín, y habitó en ella; y saliendo de allí, reedificó a Penuel.

26.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лага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Y dijo Jeroboam en su corazón: Ahora se volverá el reino a la casa de David,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si este pueblo subiere a ofrecer sacrificios en la casa de Jehová en Jerusalén; porque el corazón de este pueblo se volverá a su señor Roboam rey de Judá, y me matarán a mí, y se volverán a Roboam rey de Judá.

이에 계획하고 이건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된 범죄예요

28.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Y habiendo tenido consejo, hizo el rey dos becerros de oro, y dijo al

pueblo: Bastante habéis subido a Jerusalén; he aquí tus dioses, oh Israel, los cuales te hicieron subir de la tierra de Egipto.

29 하나는 벰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Y puso uno en Bet-el, y el otro en Dan.

30.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라
Y esto fue causa de pecado; porque el pueblo iba a adorar delante de uno hasta Dan.

31.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Hizo también casas sobre los lugares altos, e hizo sacerdotes de entre el pueblo, que no eran de los hijos de Leví.

32.팔월 곧 그 달 십 오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벰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벰엘에서 세웠더라
Entonces instituyó Jeroboam fiesta solemne en el mes octavo, a los quince días del mes, conforme a la fiesta solemne que se celebraba en Judá; y sacrificó sobre un altar. Así hizo en Bet-el, ofreciendo sacrificios a los becerros que había hecho. Ordenó también en Bet-el sacerdotes para los lugares altos que él había fabricado.

자 이겁니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한사람의 죄가 역사속에서 어떤

죄들을 낳고 또 낳게 되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불을 불을 낳아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수만은 죄들의 시작점이었어요 최초의 영적 바이러스였습니다.

신앙의 바이러스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끝없이 살아서 계대해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속에 살아남고 그들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죄를 짓는 모습이 얼마나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게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가 죄를 낳아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는 딱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되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계대에서 일어납니다.

민수기 33장 보십시오 32장

민수기 32장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와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4 Y he aquí, vosotros habéis sucedido en lugar de vuestros padres, prole de hombres pecadores, para añadir aún a la ira de Jehová contra Israel.

너희는 너희 조상을 계대해서 대를 이어서태어난 죄인의 한 종류다

죄가 이렇게 이어지는 죄가 죄를 낳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계대에서 일어난

죄인의 한 종류다 참 아픈 선언 아닙니까?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
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Si os volviereis de en pos de él, él volverá otra vez a dejaros en el
desierto, y destruiréis a todo este pueblo.

너희가예요 너희가 죄가 멸망시키는 겁니다. 죄인이 모두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그 작은 아이성 앞에 그들은 쓸어졌습니다. 그
들은

일심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거룩전쟁에 참여하
기로 마음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왜?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한가지예요 죄 때문예요

비록 뜻을 품고 거룩한 전쟁에 자기들이 참여할 거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합
력하여 들어갔지만

아간이라는 한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멈추게 했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간 한사람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멈춤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사람이 그들을 슬프게 했다고 한사람의 죄입니
다.

죄는 그렇게 큰거예요

어떤 죄라도 작은 죄는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죄는 죄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

다.

결국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가볼까요?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가보면요

열왕기하 17장 17자 18절입니다.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8 Jehová, por tanto, se airó en gran manera contra Israel, y los quitó de delante de su rostro; y no quedó sino sólo la tribu de Judá.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다는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심히 노하사 제하여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가슴에 품고 살아갈 그 무엇이 아니예요

죄는 불이에요 불 태워버린다구요 불을 품고 살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불을 품고야 살수 있습니까?

죄는 품을 만한 그 무엇이 아니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거예요 우리가 죄에대한 입장을가지고 아이들 앞에 학생들 앞에 서기전에

우리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야 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이어진 그 죄가 바로 여기까지 오는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여로보암의 죄를 열왕기 상하 한번 찾아보십쇼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왜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남겼을까?

나의 그 죄가 나의 그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로 주고 있지 않겠느냐

죄는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죄는 반드시 너의 내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죄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 해야됩니다.

죄에대한 경고를 이야기 해야합니다. 죄에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살것인가를

예기해줘야되요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를 해주기전 우리가 서야 됩니다.

죄앞에 서보고 죄에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무엇일 겁니다.

그리고 또 멸망의 원인이 있어요 13절입니다.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Jehová amonestó entonces a Israel y a Judá por medio de todos los profetas y de todos los videntes, diciendo: Volveos de vuestros malos caminos, y guardad mis mandamientos y mis ordenanzas, conforme a todas las leyes que yo prescribí a vuestros padres, y que os he enviado por medio de mis siervos los profetas.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 같이 하여

Mas ellos no obedecieron, antes endurecieron su cerviz, como la cerviz de sus padres, los cuales no creyeron en Jehová su Dios.

여호와와 율레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좇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Y desecharon sus estatutos, y el pacto que él había hecho con sus padres, y los testimonios que él había prescrito a ellos; y siguieron la vanidad, y se hicieron vanos, y fueron en pos de las naciones que estaban alrededor de ellos, de las cuales Jehová les había mandado que no hiciesen a la manera de ellas

그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

Dejaron todos los mandamientos de Jehová su Dios

이렇게 되었습니다.

3번째 멸망의 원인은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은 말합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어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들이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호세아서 4장은 예기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자기가 버림을 당한다는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자기가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자 그 결국 하나님이 없는 땅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열방을 따라서 가겠다. 그러면 열방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열방에서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써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방금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 15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을 쫓아 살다가 너희가 허무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허망한 것을 쫓더니 너희자신이 허망해지더라 그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쫓으면 너희들이 허망해 질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대해서 섬기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버린 결과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자기가 버려지게 되어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의 멸망의 원인들이 찾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최후의 죄가 있어요 최후의 죄 여러분 마지막 죄 최후의 죄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참 우리에게 끔찍한 것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최후의 죄 가장 마지막 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그 최후의 죄를 그들이 범한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십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최후의 죄예요

지울수 없는 마지막 죄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9절

9.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Comenzó luego a decir al pueblo esta parábola: Un hombre plantó una viña, la arrendó a labradores, y se ausentó por mucho tiempo.

10.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Y a su tiempo envió un siervo a los labradores, para que le diesen del fruto de la viña; pero los labradores le golpearon, y le enviaron con las manos vacías.

여러분 이 단어를 놓피면 안되요

11.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Volvió a enviar otro siervo; mas ellos a éste también, golpeado y afrentado, le enviaron con las manos vacías.

12.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Volvió a enviar un tercer siervo; mas ellos también a éste echaron fuera, herido.

13.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Entonces el señor de la viña dijo: ¿Qué haré? Enviaré a mi hijo amado; quizá cuando le vean a él, le tendrán respeto.

14.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Mas los labradores, al verle, discutían entre sí, diciendo: Este es el heredero; venid, matémosle, para que la heredad sea nuestra.

15.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Y le echaron fuera de la viña, y le mataron. ¿Qué, pues, les hará el señor de la viña?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또 다시 보내요 그리고 또 다시 보냅니다

기회를 주셔요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런데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이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길 바래요

그러나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마지막 죄예요

인간의 최후의 죄는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 회개치 않는 죄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장 4절입니다 .

4.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이 앞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4 Les dirás asimismo: Así ha dicho Jehová: El que cae, ¿no se levanta? El que se desvía, ¿no vuelve al camino?

5.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이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5 ¿Por qué es este pueblo de Jerusalén rebelde con rebeldía perpetua? Abrazaron el engaño, y no han querido volverse.

6.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6 Escuché y oí; no hablan rectamente, no hay hombre que se arrepienta de su mal, diciendo: ¿Qué he hecho? Cada cual se volvió a su propia carrera, como caballo que arremete con ímpetu a la batalla

7.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와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7 Aun la cigüeña en el cielo conoce su tiempo, y la tórtola y la grulla y la golondrina guardan el tiempo de su venida; pero mi pueblo no conoce el juicio de Jehová.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애끓는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 말 못하는 짐승들은 돌아올 때가 되면 그 때를 지켜서 돌아오거든

말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나 돌아오려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보내고 또 보내는 거에

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7장 한번 보세요 7장 13절 12절 13절 보십시오

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12 Andad ahora a mi lugar en Silo, donde hice morar mi nombre al principio, y ved lo que le hice por la maldad de mi pueblo Israel.

13.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13 Ahora, pues, por cuanto vosotros habéis hecho todas estas obras, dice Jehová, y aunque os hablé desde temprano y sin cesar, no oísteis, y os llamé, y no respondisteis;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밤중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계속 말하는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한였다. 대답지 아니하였도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25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25 desde el día que vuestros padres salieron de la tierra de Egipto hasta hoy. Y os envié todos los profetas mis siervos, enviándolos desde temprano y sin cesar;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부지런히 보내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보내서 계속 예기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준 자유를 박탈해 버리고 무조건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예요 자유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해주시는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인간된

참된 모습이었지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거예요 손을 놓을 수 받게 없는거예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입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입니다. 이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 까지

6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치아입니다 치아)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Os hice estar a diente limpio en todas vuestras ciudades, y hubo falta de pan en todos vuestros pueblos; mas no os volvisteis a mí, dice Jehová.

8절에 중반절

8.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8 Y venían dos o tres ciudades a una ciudad para beber agua, y no se

saciaban; con todo, no os volvisteis a mí, dice Jehová.

9.내가 풍채와 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팻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9 Os herí con viento solano y con oruga; la langosta devoró vuestros muchos huertos y vuestras viñas, y vuestros higuerales y vuestros olivares; pero nunca os volvisteis a mí, dice Jehová.

10.내가 너희 중에 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0 Envié contra vosotros mortandad tal como en Egipto; maté a espada a vuestros jóvenes, con cautiverio de vuestros caballos, e hice subir el hedor de vuestros campamentos hasta vuestras narices; mas no os volvisteis a mí, dice Jehová.

11.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1 Os trastorné como cuando Dios trastornó a Sodoma y a Gomorra, y fuisteis como tizón escapado del fuego; mas no os volvisteis a mí, dice Jehová.

그래서 그 결국이 12절 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2.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12 Por tanto, de esta manera te haré a ti, oh Israel; y porque te he de hacer esto, prepárate para venir al encuentro de tu Dios, oh Israel.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는 겁니다. 너 죽을 준비해라 그말입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절했을 때 이제 너 죽을 준비해라 너의 하나님 만나기 이제 준비해라

너를 향한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과 멸망뿐이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그렇게 예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끝까지 거절했을 때에는 바로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온다는 사실 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준비됐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만날 준비됐니? 끝까지 그 인생의 기회들을 끝까지 저버리는 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이세상이 아닙니까?

준비하라고 보내진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세상에서 잘 먹고 호위호식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것 진짜 사라지지 않을 것 불타지 않을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곳이

이곳이 아닙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해야될 그곳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되면

심판과 멸망을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될겁니다.

바로 이 돌아오지 않는 죄 회개치 않는 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이 야기 하고 있잖아요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 진노를 쌓는 겁니다. 마지막 죄가 회개치 않는 죄예요

이제 요약하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그 죄까지 용서했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못 박았고 십자가에 못박아 달아 죽였어요 손가락질 했어요

끝까지 하지만 그 죄까지 속죄되고 용서함속에 다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한가지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것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효가 된겁니다.

너희죄가 그저 있느니라 가 되버린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 최후의 죄가

바로 돌이키지 않는죄 회개치 않는죄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죄입니다. 바로 그 죄의 결과 그 책임을 지는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죄가 어딴냐?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분명히 죄르인해 사람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것을 거절하는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더 이상

방법이 있겠습니까? 돌이키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구원의 문제는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저 죄문제예요 그 죄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속죄함을 바라보고 다시 돌이키는거예요 그것 말고 없어요

심판과 구원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게 될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역사는 심판이다. 세계사는 심판이다 이야기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개인이나 시간의 역사속에서 심판받지 않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앞에 선겁니다. 그 심판의 역사속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 멸망이라는 것 앞에서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절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거예요

아 구원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얻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 심판앞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예요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절감시키는 겁니다. 1주일동안 묵상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나와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교훈을 더 얻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모습을 통해서 그 멸망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심판과 멸망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중의 죄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죄임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노라면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또한 죄로 인해 낙망할 때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다시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때에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수 있는 믿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 먼저 서기전 우리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반성하고 말씀앞에 우리를 세워보고

비춰볼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삶의 기쁨인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